

부울경, 동남권 양자센싱 클러스터 선정… 딥테크 전환 추진

내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
부산대·UNIST 기술거점 역할
산업현장 시험부터 사업화까지
지역 주력산업에 양자기술 더해

부산·울산·경남이 양자센싱을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양자클러스터 공모에서 동남권 양자센싱 클러스터가 최종 선정되면서 3개 시·도는 연구 역량과 산업 기반을 묶는 초광역 양자 생태계 조성에 착수한다.

클러스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된다. 부울경은 양자센싱을 특화 분야로 육성하고 양자소재·부품·장비 기술과 양자알고리즘을 결합해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은 부산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기술거점 역할을 맡는다. 산업 현장과의 연결고리는 조선·해양과 항만·물류,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에너지 등 4개 수요거점이다. 개발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시험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춘다.



따능시에 의해 생성된 부산·울산·경남이 공동 추진한 동남권 양자센싱 클러스터안 이미지.

특히 클러스터의 지향점은 양자기술의 산업 전환이다. 부울경이 기존에 확보한 주력산업 경쟁력에 양자기술을 더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만드는 딥테크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별 적용 과제는 현장 수요에서 출발한다. 조선·해양과 항만·물류를 비롯해 우주항공·방산 및 모빌리티·에너지 분야에서 양자센싱의 활용 가능성을 찾아낸 뒤 수요와 기술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

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남은 우주항공·방산과 조선·해양 그리고 기계·모빌리티 분야를 바탕으로 수요 발굴과 기술 검증에 참여한다.

연구성과의 기업 이전을 돕는 사업화 체계도 구축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확보한 기술을 찾아내 검증하고 실증한 뒤 기업의 사업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동남권을 연구성과가 기업 혁신과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양자기술 사

업화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양자산업 인력 양성도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양자 융합인재 양성체계를 통해 기술개발과 산업 적용은 물론 기업의 사업화와 전문인력 배출을 함께 추진한다.

사업 재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부산·울산·경남은 정부출연금에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매칭해 같은 비율로 부담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비와 지방비 규모는 정부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단체장은 공동 입장을 내고 이번 선정을 지역 경계를 넘어 협력한 성과로 평가했다. 3개 시·도 단체장은 “이번 국가 양자클러스터 선정은 부산·울산·경남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원팀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부울경의 탄탄한 산업 기반과 연구 역량에 양자센싱·소부장·알고리즘 기술을 결합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남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퀀텀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광주GT’ 체험 축제로

전남광주특별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모터스포츠 축제인 ‘전남광주GT’의 외연 확대에 나선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이틀간 개최돼 경기와 체험을 결합한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대회는 오는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다. 전남내구와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을 비롯한 7개 종목에 150여 대의 차량이 출전에 기량을 겨룬다. 특히 전남내구는 120분 동안 달린 거리를 기준으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광주=양수병 기자

영천시

오는 11일 렛츠런파크 개장

영천시는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이 오는 11일 첫 영업을 시작하고 13일 공식 개장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제주, 부산경남에 이어 국내 네 번째 렛츠런파크로, 17년의 기다림 끝에 문을 연다.

렛츠런파크 영천은 경마 관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경주로 안쪽 넓은 공원에서 피크닉과 산책 등을 즐길 수 있으며, 개장 이후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도 운영될 예정이다.

공식 개장일인 13일에는 첫 경주인 ‘개장 기념 특별경주’와 함께 아리랑태무시범단, 육군3사관학교 군악대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영천(경북)=김준환 기자 kih9@

부산시교육청

AI KOREA서 ‘AI 교육관’ 운영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9일부터 사흘간 벡스코에서 열리는 ‘AI KOREA 2026’에서 ‘AI교육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I KOREA 2026은 AI 관련 최신 기술과 동향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AI 전문 전시회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지난 4월 교육감 예비 후보 시절 제임 9년간 스마트기기 보급과 생형 AI ‘BeAT’의 고등학교 보급 등으로 AI 교육 기반을 다져왔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7월 취임 이후에도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 중심 미래 교육을 핵심 과제로 제시해왔다.

/부산=이도식 기자

사천시

에어쇼 ‘관람객 등록제’ 시행

사천시가 ‘2026 사천에어쇼’를 찾는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람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등록을 마치면 현장에서 별도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장할 수 있다.

등록은 9월 7일부터 행사 마지막 날인 10월 25일까지 사천에어쇼 공식 누리집이나 QR 코드·링크 주소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셔틀버스탑승장과 우주항공청·용당MRO 임시주차장 현장 등록대를 이용할 수 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전남광주 김치, 美·英 수출길 올라

총 1.5톤 김치, 美 로스앤젤레스 진출
내달엔 영국으로… 현지 행사 예정

전남광주의 프리미엄 김치가 9월 미국 식탁을 공략하는데 이어 10월에는 영국 시장에 진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3일 빛고을김치 영농조합법인, ㈜해담촌, 다산평가 등 지역 기업 3개사가 생산한 배추김치, 갓김치, 묵은지 등 총 1.5톤(약 1만달러 상당)을 선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수출은 현지 프리미엄 김치 수요에 발맞춘 것으로 고품질 김치 위주로 구성됐다. 제품별 수출 가격은 1kg당 ▲배추김치 7000원 ▲갓김치 9000원 ▲묵은지 9000원이다. 일반 김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단가를 형성하며 현지 고급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세계김치연구소, 한식세계화총연합회와 협력해 지난



전남광주김치의 미국 수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2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김치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영국시장에 진출하며, 10월21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광주 햇 김장김치 맛보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를 계기로 미주 시장 확대는 물론 유럽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남광주=양수병 기자 ysn6313@

전남광주시, 한우 개량 성과 겨룬다

오는 10일 ‘으뜸한우 경진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우 농가의 개량 성과와 우수 혈통을 평가하는 경진대회가 강진에서 개최된다. 강진군은 우수 한우 선발과 고급육 평가를 통해 농가의 개량 의지를 높이고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강진군이 주최하고 농협전남본부가 주관하는 제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으뜸한우 경진대회’는 오는 10일 강진 가축시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우량한우 선발대회와 고급육 품평회로 구분해 진행된다.

우량한우 선발대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9개 시·군을 대표하는 암소 74두가 출품된다. 출품축은 암송아지와 미경산우 및 경산우 부문으로 나뉘어 체형과 혈통을 비롯한 개량 성과를 기준으로 평

가받는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농가에는 특별시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전체 수상 농가는 20곳이며 지급되는 상금은 모두 6000만원 규모다.

고급육 품평회에는 거세우 36두가 참가한다. 출품축은 도축 이후 품질평가를 거쳐 우수 개체가 가려진다. 생산 단계에서의 개량 성과뿐 아니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점검하는 평가라는 의미도 있다.

강진군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탄소중립 한우산업 전환에 대응해 9년째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억7000만원을 투입해 으뜸송아지 선발과 우수 혈통 보급을 지원한다.

/강진(전남광주)=양수병 기자

영주시, 향후 4년 복지정책 새 틀 마련

고령화·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대응
문제 조기파악 협력체계 구축 박차

영주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및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할 2027~2030년 복지정책의 새 틀을 마련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내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생활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제6기 영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항병직 영주시장을 비롯해 영주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및 민관협력 전담팀과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계획안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제6기 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의 목

표와 실행과제를 담는다. 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복지 욕구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돌봄 수요 확대 및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주요 지역 현안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아동·노인·장애인 돌봄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고용 및 주거와 교육 분야의 사업도 발굴했다.

향후 과제는 복지사업의 양적 확대보다 위기 시민을 얼마나 신속하게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느냐에 있다. 의료기관과 교육기관 및 읍·면·동과 지역사회단체까지 연계해 고독과 고립 및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는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구미시, 민선9기 한 달 만에 투자유치 1조

‘첨단산업혁신 TF’로 투자 지원

구미시가 민선9기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반도체·K-푸드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 기업은 자화전자, AGC화인테크노, 오투기, 윌텍스다. 삼성전자와 삼성 SDS도 19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구미시는 ‘첨단산업혁신 TF’를 구성해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AI로봇반도체 소재부품·이차전지·미래 모빌리티 등 대경권 4대 핵심 성장엔진과 구미 주

력산업의 연계도 추진한다.

민선 8기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과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국책사업 6개를 유치했으며, 이를 토대로 1001개 기업으로부터 누적 16조원이 넘는 투자와 1만2252명의 고용을 이끌어냈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면서 동구미역 신설이 가시화됐고, 2025년에는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했다. 시는 김천~구미~신공항 연결철도와 KTX 구미역 정차도 추진해 신공항과 국가산단을 잇는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gon@